

HL홀딩스 인권경영선언문

HL홀딩스는 HL그룹의 자주회사로서 “익숙한 것을 혁신하고, 미지의 영역에 도전한다”는 비전 아래 인류가 생활하고, 움직이고, 상상하는 모든 영역에서 대담한 변화를 이끌어내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도(正道)의 정신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이해관계자와 함께 번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근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HL홀딩스는 고객, 임직원, 주주와 투자자,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HL홀딩스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번영하고,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본 인권선언문을 선포합니다.

이를 위해 HL홀딩스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 관계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 준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을 지지합니다.

본 선언문의 적용대상은 HL홀딩스의 구성원 및 HL홀딩스와 거래관계가 있는 구성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본 선언문과 현지 국가의 법규가 상충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해당 국가의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선언문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HL홀딩스 인권경영 원칙

1. 인권존중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성희롱, 학대, 체벌, 육설 등 비인격적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2. 차별금지

임직원의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지역, 장애, 종교, 정치 성향, 가족관계 (혼인 등),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등 인사 프로세스 상에서의 일체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3.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입사 및 고용유지를 위한 폭행, 협박, 감금, 수수료, 비용, 노예제도, 인신매매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가 및 지역의 최저 고용 연령 수준을 준수한다. 이는 HL홀딩스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인력공급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협력사에서도 준수하여야 한다.

4. 근로조건 및 노동법규 준수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정규, 초과 근로시간, 휴무 및 임금 관련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5. 보건 및 안전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가 요구하는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한다.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장 내 시설들을 관리한다.

6. 이해관계자의 정보보호

HL홀딩스는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이해관계자의 생명, 건강, 안전 등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7.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경영 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HL 홀딩스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윤리 경영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를 목격하시거나 직접 겪으신 경우 다음 채널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https://ethics.halla.com/>)

HL 그룹과 HL 홀딩스는 “정도경영”, “프런티어”, “합력”의 핵심가치를 근간으로 인권 존중을 적극 실천하고 인권 정책을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주식회사 HL홀딩스

대표이사 홍석화  최경선



정도경영위원회

위원장 이용덕 

위원 이병국  정지선 